

부족 갈등에서 통합에 이르는 과정과 잠재적 문제: 투르크멘 민족의 경우*

황 영 삼**

- 개요 -

본 논문은 근현대 투르크멘 부족들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투르크멘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분열적 양상을 극복하고 하나의 통합된 국가체제를 이룩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한 그 잠재적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표 부족들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들 부족들은 때로는 연합을, 때로는 갈등과 분쟁을 겪었다. 특히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부족 간의 불협화음은 끊이질 않았다. 소련 시기에는 투르크멘 부족 간 갈등이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민족으로 통합되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공산당 제1서기직에 테케, 요무드, 예르사리족 등 적절한 인사를 안배하면서 체제를 유지시켰다. 1991년에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국가로 등장하면서 당시 대통령 니야조프 대통령이 서둘렀던 것은 바로 민족통합의 유지에 관한 것이었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오구즈 칸을 내세운 역사재정립을 시도하면서 전체 투르크멘 부족들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했다. 그러나 부족의식과 지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분열의 잠재성은 잔존하고 있다.

주 제 어: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 부족주의, 오구즈, 테케, 요무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5282).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1. 문제제기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기의 상징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부족의 가치가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20세기 초에 투르크멘 부족들이 모여 하나의 민족으로 공화국을 형성한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소련 내의 일개 구성공화국이었지만 이러한 지리적 범위가 확정된 일은 훗날 대외 주권을 지닌 독립국가로 출범할 때 합당한 공간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현재 독립 사반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외형적으로 볼 때 투르크멘 민족이 국가 내에서 85%(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는 단순한 통계 수치로 인하여 혈연적으로 매우 동질적이고 결속력이 높은 민족국가로 생각하기 쉽다.

분명히 타민족의 구성 비율에 비하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국가명 민족(titular nation)’인 투르크멘 민족의 비율이 높고 이는 민족의 범주에서 볼 때 민족 간 분구나 갈등의 소지가 낮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문제는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와 민족 내부의 보이지 않는 부족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서 심층적 분석과 통찰이 없으면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가령 주요 국가 엘리트의 구성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족의 출신들이 충원되거나 가급적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이는 분명히 지역이나 부족의 복잡한 관계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대쥬즈, 중쥬즈, 소쥬즈의 대부족 간 역사적 관계망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실질적인 파워를 대쥬즈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사마르칸드 지역과 타슈켄트 지역 간 엘리트 구성원들의 경쟁과 갈등 구조가 있고, 키르기스스탄에도 비쉬켈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과 오쉬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의 경쟁 구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대통령은 항상 부족 간 및 지역 간 엘리트 배치 안배에 최고도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국가 엘리트 충원의 성격에 대해 파악된 것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역시 특정 부족 소속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 가령 국가 주요 포스트를 테케족 출신

이 장악하고 있다거나 다음 수준으로 요무드족 그리고 에르사리족 출신이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증명해 준다. 결국 자민족 비율이 높은 수준에 이르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국가의 핵심 포스트를 위 3대 부족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어, 부족 간 역학 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대표하는 5대 부족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고, 어떤 지리적 기반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들 부족 간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는지 아니면 적대적이었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동시에 부족 간의 관계가 소련 시기와 현재적 시점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간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를 연관하여 분석해 볼 필요성이 대두한다. 이 모든 과정을 분석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일정한 형태로 분열 양상을 띠었던 투르크멘 부족들의 구도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통합적 형상으로 전환되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났던 투르크멘 부족들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투르크멘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분열적 양상을 극복하고 하나의 통합된 국가체제를 이룩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잠재적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2. 기존 연구

본 연구주제와 관련있는 구미권 연구로는 아드리엔 에드가(Adrienne Lynn Edgar) 교수의 단행본(*Tribal Nation: The Making of Soviet Turkmenistan*, 2004)을 들 수 있다. 1924년의 투르크멘 소비에트 공화국 형성에 관한 저작으로서 동 단행본이 가지는 가치는 1차 사료의 활용으로 인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드가 교수는 단행본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투르크멘 공화국에 대하여 ‘부족중심적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투르크멘 부족의 중요성에 주목하였고 이를 민족 및 국가와 연계시켰다. 이 저서는 에드가 교수가 발표했던 “Genealogy, class, and ‘tribal policy’ in Soviet Turkmenistan, 1924–1934”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투르크멘 공화국의 부족, 민족, 국가의 개념은 현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정체성 규명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또 윌리엄 아이언스(William Irons)의 연

구서는 투르크멘 5대 부족 중 서부 및 북부 지역에 근거를 둔 요무드족에 대한 것인데 이를 통하여 투르크멘 부족의 대립 및 협력적 양상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일찍이 폴 가이스(Paul Georg Geiss)도 투르크멘 부족주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어서 투르크메니스탄과 부족주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¹⁾

소비에트 투르크학 학자인 바실리 바르톨드(Василий Бартольд: 1869~1930)의 집대성(집)에 집대성된 투르크에스탄(현재 중앙아시아의 중남부 영역) 관련 연구에서 투르크멘 민족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다. 제정러시아 시기에 해당하는 이 연구는 투르크멘 민족 외 타지크와 우즈베크 민족과 관련하여 민족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투르크멘 부족에 관한 연구는 1940년대 소련 학계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소련으로서는 지방의 주요 민족에 관한 분석이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학문적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업적이 쏟아져 나왔다.³⁾ 투르크멘 부족 및 민족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인류학적 연구 결과가 소련 학술원의 주도 하에 전문학자들에 의하여 생산되었던 것이다.

- 1) Adrienne Lynn Edgar(2001) "Genealogy, class, and 'tribal policy' in Soviet Turkmenistan, 1924-1934," *Slavic Review*, 60/2, pp. 266-288; Edgar(2004) *Tribal nation: the making of Soviet Turkmenist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illiam Irons(1975) *The Yomut Turkmen: A Study of Social Organization among a Central Asian Turkic-Speaking Popul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aul Georg Geiss(1999) "Turkmen tribalism," *Central Asian Survey*, 18/3, pp. 347-357.
- 2) 바르톨드의 저작이 집대성된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9 томах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63-77).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수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제정러시아 통치기였다. 저술 대부분이 그 당시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 3) 대표적으로 카르포프 박사의 저작이 있다. Г. И. Карпов(1940a)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в Туркмении (1918-1920)*, (Попул. очерк), Ашхабад: Туркменпартиздат; Карпов(1940b) *Этнический состав туркмен* (Рукопись хранится в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МГУ), М.; Карпов(1940c)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туркмен и туркменского народа*, Ашхабад: Туркменгосиздат; Карпов(1946) "О туркменах эсенхановского юрта", *Известия ТФ АН СССР*, № 3-4, С. 21-25; Карпов(сост.)(1925) *Племенной и родовой состав туркмен*, Полторацк(Асхабад): Наркомвнутдел Туркменск. С. С. респ.; Карпов и А. М. Батцер(1930) *Хивинские туркмены и конец Кунградской династии*: (Матер. по истории туркмен), Ашхабад: Туркменск. гос. изд-во.

투르크멘인이면서 오슬로와 모스크바에서 거주하면서 자국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쇼흐라트 카디로프(Шохрат Ходжакович Кадыров) 박사의 투르크멘 민족의 역사적 기원과 문화 등에 관한 단행본도 있는데, 『러시아-투르크멘 역사사전(Российско-туркмен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제1권이 대표적이다.⁴⁾ 이 사전에는 특히 투르크멘 부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 형성 과정에 나타난 주요 용어들이 체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국내 연구로는 「투르크메니스탄 민족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20세기 초 투르크멘 공화국 체제의 출범 배경과 쟁점 및 의의」와 「투르크멘 정치변동과 정치전통에 관한 분석 - 부족주의, 합의, 민주주의적 토대를 중심으로」가 있다.⁵⁾ 전자는 1924년에 설립된 투르크멘 사회주의 공화국에 관한 연구이며, 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전통 중 부족주의적 시각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후속 심층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II. 투르크멘 종족의 형성과 변천

1. 기원과 전개 - 18세기 이전까지

투르크멘 종족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서는 이미 중근세기의 학자들이 규명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유목집단인 “오구즈 종족이 바로 투르크멘인들이다”라는 것이다.⁶⁾ 9~10세기경 카스피 해 동북부 스텝 지역을 주 무대로 활

4) Ш. Х. Кадыров(2001) *Российско-туркмен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в 2 томах, Т. 1, Берген: Vodoni Hus.

5) 황영삼(2015a) 「투르크메니스탄 민족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20세기 초 투르크멘 공화국 체제의 출범 배경과 쟁점 및 의의」, 『슬라브학보』, 제30권 1호, 495-542쪽; 황영삼(2017) 「투르크멘 정치변동과 정치전통에 관한 분석 - 부족주의, 합의, 민주주의적 토대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3권 1호, 95-127쪽.

6) 마흐무드 알-카쉬가리(Махмуд ал-Кашгари, 1029~1101, 카라한조), 라시드 앳딘(Рашид ад-Дин, 1247~1318, 일 칸국), 아불가지-칸(Абулгази Багадур-хан, 1603~1663, 히바 칸국) 등의 연구에 보면 투르크멘인들의 기원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오구즈 종족의 24개 부족 후손이 바로 투르크멘인이다. 대표적으로 Махмуд ал-Кашгари(2005) *Дивán лугát ат-Турк*, перевод. З.-А. М. Ауэзовой, Алматы: Дайк-Пресс, С. 1051-1052 참고. 나머지 2명의 저서는 마흐무드의 글을

동하던 오구즈 종족이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으로 남하하여 기존의 토착민들과의 혼혈이 이루어지고 종교적으로 이슬람화하면서 ‘투르크멘’ 종족이 등장했다. ‘투르크멘’이라는 용어는 10세기에 아랍 문헌에 처음 등장하기는 하지만 민족과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집단으로 명명이 되는 것은 1924년 소련 구성공화국으로 나타난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CCP)에서 최초이다.⁷⁾

소련 성립 이전의 투르크멘인들은 ‘투르크멘’이라는 용어의 테두리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족 단위명으로 활동했다. ‘투르크멘’ 종족의 정체성은 바로 조상의 시조를 ‘오구즈’로 간주하느냐 하는 여부에 있다. 따라서 전부는 아니지만 자칭 다양한 투르크멘 부족들은 모두 오구즈의 후예들이기이다. 따라서 오구즈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존경은 오늘날 투르크멘인들과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정체성 유지의 핵심이다.

투르크멘인을 하나의 민족의 개념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그 민족을 이루는 부족에는 테케족, 요무드족, 에르사리족, 사리크족, 초두르족, 곱클렌족, 살로르(살리르)족, 사카르족, 야지르족, 무르차족, 알릴리족, 노후르족, 오구르잘리족, 아타족, 히디렐리족, 호자족, 쉬흐족 등⁸⁾이 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족은 앞에서부터 열거한 7개 정도가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순서대로 보았을 때 차례대로 5개 부족은 국기에 고유한 카펫 문양으로 묘사되어 있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

재차 강조하지만 소련이 등장하기 전까지 ‘투르크멘’이라는 용어가 민족이나 국가를 지칭하여 사용된 적이 없다. 단지 학자들이 특정 시기에 활동했던 여러 투르크멘 부족들을 편의상 부르는 용어에 불과하다. 그 이전의 역사에 등장하는 투르크멘인들에 대해서는 광의적 의미에서 투르크멘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부족명이 그들을 표시하는 용어였다. 가령 사리크족, 테케족, 요무드족 등과 같은 형태로 역사 무대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오구즈 종족들이 세운 국가 중에 셀주크조(10~12세기)는 현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중시하는 역사적인 국가이다. 그 이유는 당시 팽배하던 셀주크조

원용하고 있다.

7) 황영삼(2015a), 500.

8) Кадыров(2001), 74. 본 논문에서는 상기 부족에 관한 상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부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디로프의 저서에 소개되어 있다.

의 국력을 통하여 투르크멘 민족의 자부심이 함양되었기 때문이다. 십자군 전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셀주크조(Seljuk Empire: 1037~1194)는 이후 흑양조(Kara Koyunlu: 1374~1468)와 백양조(Ak Koyunlu: 1378~1501) 및 오스만조(Ottoman Empire: 1299~1922)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갖게 되는데 이 모두가 투르크멘 종족들이 건설한 왕조에 속한다.⁹⁾

역사적으로 볼 때 11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오구즈 종족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북인도, 카프카즈 및 중동 지역으로 대량 이주했다. 이때 오구즈 종족은 다양한 형태의 부족이었으며, 부족연맹체를 구성하기도 했는데 13세기 중엽에 위력을 발휘했던 부족은 야지르족, 14세기에는 살로르족과 에르사리족이 강했다. 이 시기에는 몽골 국가와 티무르 제국이 중앙아시아 및 중동 일대에서 강력한 권력을 갖던 시대였다. 그 결과 투르크멘 여러 부족들은 연맹체에서 이탈하여 제각각 흩어졌고 일부는 아제르바이잔 남부 지역에서 흑양조와 백양조를 건설하고 일부는 아나톨리아 내륙 깊숙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⁰⁾

투르크멘 부족들이 건설했던 백양조는 1501년에 이란의 사파비조(Safavid dynasty: 1501~1736)에 멸망당했다. 이때부터 이란인들의 투르크멘인들에 대한 지배의 역사가 시작된다. 즉 사파비-카자르조(1794~1925) 이란 왕조에 걸쳐 이란 북부 및 호라산 일대의 투르크멘 부족, 즉 요무드, 곱클렌, 사리크족들은 이란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16세기 초에는 카자흐 스텝의 우즈베크인들이 남하하면서 우르겐치, 메르브, 사마르칸드 지역이 그들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우즈베크인들의 지배 하에 들어간 투르크멘 부족들은 초두르, 또 다른 요무드, 에리사리족 등이 있다. 투르크멘 여러 부족들은 지리적으로 나뉘고 지배 왕조 또한 이란과 우즈베크(히바 칸국과 부하라 에미르국) 왕조로 나뉘어 지배당하게 되었다.

1524년에는 망기실락의 투르크멘 부족(주로 초두르족)은 히바 칸국에 대항

9) 즉 터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은 혈통적으로 동질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 원조는 당연히 투르크멘인들이다. 이들은 언어학상 분류로 볼 때 오구즈계 투르크에 속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한 투르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 그리고 키르기스인들과 맥락을 달리한다.

10) 참고로 시리아 내전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시리아 투르크멘인 소수민족의 경우 오스만조와 관련이 있으며,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인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즉 터키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해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모스크바 공국의 동방 팽창은 투르크멘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556년 아스트라한까지 점령한 모스크바 공국은 연이어 카자크 부대를 동원하여 시비리 칸국을 공격했고, 17세기 초에는 다시 카스피 해 연안을 거쳐 망기실락 반도에 이르면서 교역을 위한 요새를 건설했던 것이다.¹¹⁾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공국의 군대는 이 일대에서 활동하던 초두르족과 조우하게 되었고, 초두르족은 히바 칸국의 우즈베크인들과 모스크바 공국과의 교역에서 경쟁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17세기에 망기실락 반도 일대의 정치적 혼란은 칼막족의 동방 재이주와 노가이족의 침입 및 우즈베크, 카자흐인들의 쟁탈전으로 인하여 가중되었다. 그 결과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망기실락에서 활동하던 초두르 및 요무드족들이 망기실락 반도의 북부 및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러시아 남부 즉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 바로 이들 초두르족들이었다. 요무드족은 카스피해 동부 연안지역(현재의 발칸 주)과 카라쿰 사막 주변 오아시스 등지로 이주했다.

이 과정에서 사리크족과 초두르족의 연맹이 이루어졌다. 이들 부족은 히바 및 부하라 칸국의 칸에 명목적이거나 복속했고 동시에 모스크바 공국에도 신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리크족은 카라쿰 사막을 넘어 이란 지대인 호라산 유역까지 이주하여 활동 공간을 이동했다. 그 결과 카라쿰 북부에 남게 된 초두르족과 사리크족 연맹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2. 18~20세기 초의 투르크멘 제 부족들의 갈등과 협력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란에서는 이스파한에 수도를 둔 사파비조가 완전히 멸망하고 테헤란에 수도를 둔 카자르조(Kadjar dynasty: 1794~1925)가 등장했다.¹²⁾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향한 팽창을 가속화하고 있었는데,¹³⁾

11) 모스크바 공국의 조정에서는 혼란시기에 속했던 1603년에 이미 카자크 부대장 아타만 네차이(Атаман Нечай)가 우르겐치 유역을 공격한 바 있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간헐적인 공격을 단행했고 망기실락 반도 지역에 교역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미하일 로마노프 왕조 초기에 이미 모스크바 공국과 히바 및 부하라 칸국의 사절단 교환이 이미 이 일대를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망기실락 거주 투르크멘인들은 주변 민족들의 공격에 점차 노출되었던 것이다.

12) 두 왕조 사이에 나디르-샤(Надир-шах: 1736~1747 재위)가 10여년 이란 지역을

1732년에 카자흐인들의 소쥬즈와 일부 중쥬즈 지역이 러시아에 복속되었던 것이다. 히바 칸국과 부하라 에미르국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이러한 동서남북의 지정학적 상황에 소수 민족으로 활동하던 투르크멘 여러 부족들은 제각각 분리되어 단합된 힘을 과시할 수 없었다.

먼저 러시아의 팽창으로 인하여 망기실락 반도의 종족적 지형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초두르족은 아스트라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요무드족은 러시아인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동시에 남쪽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특히 1782년에는 요무드족들이 켈레켄 반도의 유전 탐사를 위하여 러시아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마침내 1798~99년에 망기실락 지역은 러시아의 영역으로 거의 편입되기 시작했고 1803년에 결국 러시아에 신속되었다. 동시에 아스트라한 투르크멘인 공동체가 형성되고(1813~1815), 스타브로폴 지역에도 투르크멘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1825). 이들 두 공동체는 오늘날 러시아 거주 투르크멘인 동포의 핵심을 이룬다. 초두르족의 러시아 이주는 한편으로는 동족의 침입과도 무관하지 않다. 19세기 초에 히바 칸국과 요무드족 및 임펠리족 연합 세력이 초두르족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중남부 지역에서도 큰 변화는 발생하고 있었다. 1827년에 사리크족이 히바 칸국의 지배에 대해 봉기했고, 1830년 알릴리족은 히바 칸국 내지로 강제이주되었다. 1843년 메르브 및 테젠 지역의 사리크족과 테케족은 히바 칸국에 대해 봉기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히바 칸국은 1854년에 이란군과 연합하여 체메나바드 지역에서 사리크족을 괴멸시키기도 했다. 1855년에는 히바 칸국이 요무드족을 공격했지만 패배하여 테케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테케족은 지원군을 보냈지만 참패를 당하여 오히려 히바 칸국의 영역에서 떠나 아할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듬해에 요무드족은 우즈베크인, 초두르족, 테케족으로 구성된 히바 칸국의 군대에게 대패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투르크멘 동족들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상호간의 전쟁으로 전개되어 나갔다.¹⁴⁾

통치했지만 그의 사후 존재가 사라졌다. 카라쿰 오아시스 지대를 두고 호전적이었던 나디르-샤 군대와 투르크멘 부족들간의 전쟁이 20여년간 지속되기도 했다.

13) 1719~22년에 이르티시 국경선이 확립되었다. 움스크, 세미팔라틴스크, 우스티카메니고르스크 요새가 완공되고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경계선이 확정되었다.

14) Кадыров(2004) “Становление и эволюция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у туркмен”, автореф. дисс. на соиск. учен. степ. доктора ист. наук, М.: Ин-т

이때부터 테케족은 테젠 지역과 메르브 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했고 동족이던 사리크족은 울로탄 및 타흐타바자르 지역으로 축출되었다. 테케족이 이들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히바 칸국의 지배도 종식되었다. 그리고 테케족의 힘은 1866년 아나우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오늘날 아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테케족은 아할, 테젠, 메르브 지역을 주 무대로 확대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팽창은 중앙아시아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타쉬켄트가 1865년에 러시아군에 함락되었다. 러시아 군대는 히바 칸국과 부하라 에미르국에 대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침과 동시에 투르크멘족의 영역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팽창을 추구해 나갔다.

1867년 타쉬켄트에 투르크메스탄 총독부를 설치한 러시아는 1873년에 히바 칸국을 굴복시키고 군사 원정을 지속적으로 감행했지만 1879년에는 곱테페 근처에서 투르크멘인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때 같은 투르크멘 종족이던 요무드족과 테케족의 상반된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일찍이 러시아에 친화적이던 요무드족은 러시아군과 합세하여 테케족이 저항하던 곱테페 요새를 점령했기 때문이다.¹⁵⁾ 테케족은 동족이던 요무드족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되었으나 군사력의 차이로 인해 러시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다 부족집단인 테케족이 러시아와 러시아인에 대해 적대적 저항의식을 형성하게 된 이유도 바로 곱테페 전투에 있었다. 러시아 군대는 1884년 메르브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당시 테케족의 칸이던 막툼굴리-칸(Махтум-Кули-Хан, 1859~1924)의 항복을 받아내고, 같은 해 울로탄 지역의 사리크족이 러시아에 복속되면서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이 러시아에 점령당하게 되었다. 아무다리야 강 유역의 에르사리족은 부하라 에미르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부하라 에미르국 역시 러시아의 직속지배 체제로 편입¹⁶⁾되면서 사실상 독립성을 상실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Африки РАН. С. 454.

15) 1881년 곱테페 전투의 상황은 다음을 참조. Slavomir Horák(2015) “The Battle of Gökdepe in the Turkmen post-Soviet historical discourse,” *Central Asian Survey*, Vol. 34, No. 2, pp. 149-161.

16) 1886년에 부하라에는 러시아의 정무담당청이 신설되면서 투르크메스탄 총독부의 관할이 아니라, 러시아 당국의 직접 관할체제로 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히바 칸국에도 적용되어 히바 칸국과 부하라 에미르국이 러시아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

19세기 전반기에 이미 투르크멘인들의 유목생활은 거의 종식되었다. 즉 투르크멘 부족들의 생활양식이 반농반목 혹은 정착생활 형태로 전환되어 나갔던 것이다.¹⁷⁾ 유목 생활을 주로 하던 곳은 카라쿰 사막의 중앙 지대, 서부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라칼팍스탄 남부 지역 등이 해당한다. 19세기 말에는 러시아의 자본력을 토대로 한 경제개발 정책이 진행되어 켈레켄 지역에서는 원유가 생산되고, 크라스노봇스크 항구 도시의 개발 그리고 철도 건설 등 근대화가 진행되었다.¹⁸⁾

1900년 기준으로 볼 때 투르크멘 여러 부족들은 투르케스탄 총독부령의 자카스피 주의 신민으로서 러시아 근대화 정책의 대상으로 재편되었고, 히바 칸국 및 부하라 에미르국의 피지배 종족으로서 우즈베크인들과 갈등을 겪으며 생활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쉬가바트 지역은 러시아 지배의 핵심 지대로서 대개 테케족의 생활 근거지였는데 많은 테케족이 러시아의 근대화 교육을 받게 되었고, 러시아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되었다.¹⁹⁾ 여기에는 일부 요무드족과 사리크족도 포함된다. 히바 칸국 지역에는 요무드족이 활동하고 있었고 우즈베크인들과 생활영역을 두고 갈등이 많았다. 현재의 다쇼구즈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하라 에미르국의 지배 하에 놓인 아무다리야강 영역은 주로 에르사리족이 해당하며 이 시기에 아무다리야강 좌안도 부하라 에미르국 영역 하에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투르크멘 주요 부족 중 테케족은 러시아의 직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요무드족은 히바 칸국의 우즈베크인들과, 그리고 에르사리족은 부하라 에미르국의 우즈베크 및 타직인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소모전을 겪으면

17) 카디로프의 연구에 의하면 19세기 전반기에 유목생활을 하던 투르크멘인들은 128,350 명으로서 전체 투르크멘인의 약 15%를 차지했다. Кадыров(2009) *Элитные кланы: штрихи к портретам*, М.: ММІХ, С. 88.

18) 켈레켄 섬의 유전 개발은 노벨 형제가 단행했다(1895). 아쉬가바트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1896), 『Асхабад(아스하바드)』 신문이 창간되었으며(1899), 자카스피 철도가 부설되었다(1880~1898).

19) 카디로프의 표현에 의하면 이른바 예브로-투르크멘(еврогуркмены: 유로-투르크멘, 서구화한 투르크멘)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러시아어 교육, 즉 신식 교육을 받고 러시아인과 혼인을 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다. 전통 투르크멘인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거주했고 무지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혁명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변화해 나갔다(Кадыров 2009: 78-79).

서 1916년에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반러시아적 봉기²⁰⁾가 발생하고 연이어 러시아혁명이 발발하면서 큰 변화의 소용돌이로 이어지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발생한 피지배 민족들의 독립운동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전개됨으로써 투르크멘 여러 부족들의 정치적 입장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진행된 것이다.

III. 투르크멘 부족 간 분열과 갈등 양상

1. 킱데페(Гёкдепе) 전투의 경우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투르크멘 부족들의 지리적, 정치적 분열 상황은 주변 강대국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요무드족은 히바 칸국 내에서 우즈베크인들과 갈등과 공존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북부 및 서부 지역에 걸쳐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히바 칸국이 러시아 당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러시아 군대의 팽창이 계속되자 요무드족의 선택은 친러시아적 노선을 취하는 것으로 돌아섰다. 히바 칸국의 복속 과정에서 요무드족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지원했고 그 결과 러시아와 요무드족의 친근성은 견고해졌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요무드-러시아의 결탁에 대해 테케족은 지지할 수 없었고, 요무드족의 안내를 받은 러시아군의 진지에 대해 테케족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함으로써 양측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테케족이 친러시아적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지리적으로 테케족의 근거지가 우즈베크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서부 및 북부 지역이 아니었고 독자적으로 생활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카라쿰 사막 이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테케족은 아할 지역, 테젠 및 메르브 지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해 있었다.

1878년에 요무드 및 러시아군 숙영지에 대한 테케족의 공격이 빈번하게 되자 러시아군은 요무드족과 함께 테케족 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계획

20) 테케족의 기마부대 600여 명이 러시아 당국에 의해 전선으로 차출되었다. 그리고 1916년에는 반러시아 봉기가 타쉬켄트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이른바 ‘바스마치 운동(Басмачество: 1918~1938)’으로 연결되었다.

을 수립했다. 이때 러시아의 장군은 로마킨(Николай Павлович Ломакин: 1830~1902)이었는데 그는 차트(Чат: 아트렉 강과 숨바르 강이 합류하는 지점)를 차지하고 진지를 구축했다. 이어서 7천여 명에 달하는 보병 및 기병과 대포를 이끌고 지속적으로 동진했고 이에 대해 테케족의 방어 전투가 전개되었다. 두즈-올룸(Дуз-Олум), 이어서 카라-칼라(Кара-кала), 테르사칸(Терсакан), 벤데센(Бендесен)²¹⁾ 지역이 차례로 러시아군에 함락되었다. 테케족은 간간이 반격을 시도했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고, 결국 킱테페 지역에 요새를 구축하고 최후의 항전을 하기로 했다. 말하자면 이제 킱테페 전투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군이 서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테케족 근거지를 향해 쉽게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지역의 요무드족이 러시아에 협조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요무드족이 반러시아 전선에 테케족과 협력했다면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동족간의 연대보다는 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갔고 테케족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1880년 12월 스코벨레프(Михаил Дмитриевич Скобелев: 1843~1882) 장군이 지휘하는 러시아 군대가 킱테페 요새 건설의 완공 이전에 테케족을 섬멸하기 위해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요새 내의 테케족 전사들과 일반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항전했다. 테케족은 동족인 요무드족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메르브 지역의 동족 테케족의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오로지 지역적으로 볼 때 아할 테케족들만이 러시아 세력에 대항하는 구도였던 것이다.

러시아군은 잔혹하기로 유명한 스코벨레프 장군을 필두로 히바 지역에서 합류한 쿠로파트킨(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Куропаткин: 1848~1925) 장군 등 전력의 크게 강화된 상태에서 대포의 화력을 이용하여 요새 성벽을 폭파시키고 결국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성 안에는 잔류한 사람이 있었고, 일부는 성 밖으로 탈출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스코벨레프 장군의 명령으로 도주 병력을 추격하여 살해하고 잔존 병력과 백성들을 살해하는 대학살을 감행했다.²²⁾ 테케족에게는 매우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²³⁾

21) 악테페(Акдепе)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마을.

22) 대학살의 책임으로 스코벨레프 장군은 본국으로 소환되었지만, 킱테페 전투에서 테케족은 외국군대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성과 용맹성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만큼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테케족은 비순응적인 투르크멘 부족이었던 것이다. 당시 학살된 테케족의 규모는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할 테케족은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서 저항한 유일한 부족이었지만 인접한 요무드족이나 같은 부족인 메르브 지역의 마리 테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단독으로 맞섰다가 끝내 패배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곱테페 전투는 투르크멘 부족들의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소련 시기에 곱테페 전투는 연방적 차원이나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독립선언의 해인 1991년 사파르무랏 니야조프 대통령은 곱테페 전투가 있었던 1월 12일을 현충일로 제정하여 이때 사망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는 날로 지정했다. 제2대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곱테페 박물관²⁴⁾을 건립하기도 했다.

2. 요무드 주나이드-칸의 독자적 활동

러시아 혁명 직후 발생한 내전으로 인하여 러시아 공화국 지역외의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커다란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다. 1918년에 투르크스탄 자치 공화국이나 히바(호레즘) 인민공화국, 부하라 인민공화국 등으로 나타난 정치적 변화는 러시아 내전기를 통하여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특히 투르크멘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호레즘 지역에서는 요무드족에 속하는 주나이드-칸(Джунаид-хан: 1857~1938)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즉 히바 칸국이 종식되고 호레즘 인민공화국의 성립, 그리고 소비에트 혁명군대와 반혁명 군대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에서 주나이드-칸은 군사력을 키우고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다. 주나이드-칸의 적대 진영은 바로 소비에트 혁명군과 인민정부였다.

요무드족인 주나이드-칸은 히바 칸국의 영역에서 투르크멘 종족 공동체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지식은 알았으나 권위는 높아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훗날 군대를 모으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주나이드-칸은 백위군의 콜차크 부대와 협력했고 카자크 부대와도 긴밀한 관계를 취했다. 이들 군대 모두는 소비에트 혁명군의 반대진영들이었다. 격렬한 전투 끝에 마침내 1920년 2월에 히바 지역이 혁명군 수중으로 넘어가고 칸국이 멸망함에 따라 주나이드-칸은 쿤그라드 지역(오늘날 카라칼팍스탄 아랄

23) 곱테페 전투 이후 이란 영토로 떠났던 투르크멘 부족은 약 15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24) 2009년에 곱테페 전투를 추모하는 박물관이 건립되었다.

해 인근)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주나이드-칸은 이제 소비에트 권력이 창출한 호레즘 공화국의 적대적 인물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테케족이나 에르사리족 등 다른 투르크멘 부족들과의 공조는 없었다. 이때 테케족은 소비에트 혁명 정권에 가장 협조적이었고 아쉬가바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중심지 형성에 관심이 있었으며, 에르사리족 또한 차르조우(투르크메나바트)를 중심으로 투르크멘인들의 영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투르크멘 3대 부족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했다기보다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어진 호레즘 소비에트 정권의 강화와 주나이드-칸 내부 지지세력의 약화로 인해 주나이드-칸은 카라쿰 사막 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주나이드-칸은 아쉬가바트에 근거를 둔 아할 테케족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테케족의 지원은 아예 없었다. 테케족이 볼 때 주나이드-칸의 활동은 전체 투르크멘 부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호레즘 지역에서 입지를 굳히려던 개인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곱테페 전투의 기억 또한 테케족에게는 요무드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1921년부터 진행되던 투르크멘 소비에트 권력이 새로운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하려던 움직임은 테케족으로 하여금 주나이드-칸을 지원하지 않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주나이드-칸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1930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 북부 지역과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을 왕래하면서 군사를 동원하여 소비에트 정권에 대해 무력 투쟁을 개시했지만 세력의 약화로 인해 와해되고 말았다.²⁵⁾ 주나이드-칸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은 일단 히바 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던 요무드족의 실천적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적 권력 추구라는 비판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동족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5) 바로 소비에트 당국에서 적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스마치 세력이 바로 투르크멘 공화국 영역에서는 주나이드-칸의 저항세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바스마치 집단은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정권에 대해 무력으로 대항한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배격하고 현지 민족이 중심이 되어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조직의 견고함이 강하지 않아 결국 소비에트 권력에게 모두 제압되었다.

3. 소비에트 투르크멘 공화국의 수도 결정에 관한 갈등

러시아 내전이 신생 소비에트 정권의 성공으로 종식되면서 중앙아시아 일대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경계 설정, 즉 공화국 수립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아시아 부로(Среднеазиатское Бюро ЦК ВКП(б))가 1922년 4월에 창설되면서 실무적인 결정들을 행하게 되었다.²⁶⁾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일대를 거주 민족을 중심으로 새롭게 경계 설정을 한다는 것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의 중심 즉 수도의 위치에 관한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역사상 투르크멘인 여러 부족들이 모여 일정한 지리적 범주의 행정제도를 갖춘 단일 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큰 주류는 부족의 규모와 역사성에 비추어 세 갈래로 나타났다. 지리적으로 서쪽에서 볼 때 호레즘 지역 일부와 카스피 해 동쪽 연안 및 이란 북부 지방에 걸쳐 삶의 무대로 하고 있던 요무드족, 오늘날 아쉬가바트 지역과 테켄, 마리 지역의 오아시스를 일대를 장악한 테케족, 그리고 아무다리아 강 유역 일대의 에르사리족 등이다. 요무드족은 일찍이 러시아와 협력하여 테케족과 싸운 적도 있고, 호레즘 지역에서는 우즈베크인들과 갈등도 겪었으며, 특히 주나이드-칸은 독자적인 군사행동까지 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호레즘의 영역에 있던 타샤우즈(Ташауз: 현 다쇼구즈 Дашогуз) 도시는 투르크멘인들과 우즈베크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우즈베크인들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투르크멘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제 영토 변경작업에서 타샤우즈는 투르크멘 공화국 영토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수도 자체를 아예 타샤우즈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테케족은 외적 규모가 가장 컸고 콕데페 전투에서 러시아군에게 패배당한 수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근대화 정책의 최대 수혜 부족이었다. 테케족 중에는 러시아학교를 수학하고 러시아어에 능통한 엘리트들도 배

26) 부로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계선 확정에 실무적 역할을 했다. 황영삼(2015a), 506-513; Shoshana Keller(2003) "The Central Asian Bureau, an essential tool in governing Soviet Turke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2(2-3), pp. 281-297; Amanda Farrant(2006) "Mission Impossible: the Politico-geographical Engineering of Soviet Central Asia's Republican Boundaries," *Central Asian Survey*, Vol. 25(1-2), pp. 61-74.

출되었다. 러시아인들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했던 테케족들이 근대화 수혜 대상이 된 것은 역설적인 일이었다. 테케족의 활동 무대는 투르케스탄 총독 부령에 있어 히바 및 부하라 에미르국의 영역과는 달랐기 때문에 에르사리족 엘리트들과도 차이가 있었다.

에르사리족은 부하라 에미르국 영역하에서 가장 호전적인 전사조직을 갖춘 투르크멘 부족이다. 이들은 1922년에 접어들면서 중앙아시아 뷰로의 활동과 연동하여 더 이상 우즈베크인들의 국가가 아닌 투르크멘 공화국의 영역으로 편입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나아가 이들은 국가 수도 자체를 차르조우로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중앙아시아 뷰로가 설립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화국어 경계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투르크멘’이라는 용어가 민족과 국가명으로 사용되기까지의 기간은 투르크멘 부족간의 그리고 투르크멘 부족 엘리트간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 양상이 나타난 시기였다.

공화국 경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미 기존 논문²⁷⁾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도 설정에 관한 논쟁에 대해 부족 개념의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924년 당시 투르크멘 공화국 설립 계획이 확실히 되자 국가의 중심 즉 공화국 수도의 후보는 폴토라츠크(Полторацк: 현 아쉬가바트), 차르조우, 타샤우즈 등 3개 도시였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곳은 바로 차르조우였는데 그곳은 예부터 실크로드 상에 있어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 있었고, 우즈베크 공화국 등 중앙아시아의 내륙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아프가니스탄 등 외국으로 이주한 투르크멘 동포들을 유인하기 쉬운 곳이었다. 차르조우는 에르사리 부족의 활동무대였고 이를 지지한 정치 엘리트는 나자로프(Бекджан Назарович Назаров: 1895~1937)였다. 타샤우즈 지역에서 출생하고 혁명군대의 경력을 가진 나자로프는 투르크멘 공화국의 혁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는데 사실 초두르 부족 출신이었다. 그가 보기에 요무드족이 압도적이던 타샤우즈보다는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차르조우가 수도로서 더 적합했고 실제로 1920년대 중반에 수도 이전계획이 결정되었다.

수도를 차르조우가 아닌 타샤우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망기실락 출신 요무드족인 아이타코프(Надырбай Айтаков: 1894~1938)였다. 아이타코프는 역사적으로 투르크멘인들의 근거지인 타샤우즈는 반드시 신생 투르크멘 공화국에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의 수도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

27) 황영삼(2015a), 495-542.

다. 그의 근거는 투르크멘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역사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도시’는 바로 다름 아닌 타샤우즈였다. 폴토라츠크 지역은 투르크멘인보다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차르조우는 오랫동안 부하라 우즈베크인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로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²⁸⁾

위 두 도시에 비해 폴토라츠크가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파스쿠츠키(Николай Антонович Паскуцкий: 1894~1938)를 비롯한 슬라브계 출신 엘리트들에게서 나왔다. 이들은 폴토라츠크가 이미 자카스피 주에 속했던 시기부터 투르크멘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는데 혁명 당시 볼셰비키 진영에 가담한 사람들이다. 당연히 러시아어를 잘 구사했으며 모스크바 엘리트들과의 소통 또한 원활했다. 폴토라츠크 지역은 타샤우즈와 차르조우 지역과는 달리 러시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곳이어서 소비에트 중앙 당국과의 교감 또한 높았던 지역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일대의 주요 부족은 테케족이었는데 테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도가 타샤우즈나 차르조우로 설정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신생 투르크멘 사회주의 공화국 설립 당시 수도 결정에 대한 투르크멘인들 사이의 논쟁과 갈등은 폴토라츠크에서 일찍이 활동하던 슬라브계 엘리트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수용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규모상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테케족의 지지도 작동되었던 것이다.

IV. 통합과 잠재적 갈등: 소비에트 투르크멘 공화국 형성과 독립 투르크메니스탄

1. 소비에트 국가로 통합된 투르크멘 부족

분열적 양상으로 수백 년간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 오던 투르크멘 여러 부족들은 일단 소비에트 공화국의 형태로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투르크멘’이라는 용어를 국가명으로 채택했다. 히바 칸국의 영역에서 우즈베크인들과 갈등과 차별을 받았던 요무드족, 부하라 에미르국에서 주로 전사 집단으로 활용되었던 에르사리족 그리고 픽데페 전투에서처럼 러

28) 황영삼(2015a), 517.

시아의 팽창에 저항했고 독자적이었던 테케족 등이 모두 투르크멘 공화국 영역 속으로 통합되었던 것이다.

통합된 투르크멘 민족을 부족별로 분석한 소련 인류학자 카르포프(Г. И. Карпов)의 분석을 인용한 카디로프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1924년부터 1926년까지 투르크멘 공화국을 구성한 투르크멘 민족을 부족별로 보면 테케족이 270,254명(39.2%), 에르사리족 157,483명(22%), 요무드족 103,726명(13.2%), 살로르족 35,541명(5.2%), 사리크족 32,729명(4.8%) 및 기타 부족(초두르족 24,077명, 곱클렌 20,899명 등) 15.6%로 구성되어 있었다.²⁹⁾ 테케족이 전체 투르크멘인들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테케, 에르사리, 요무드 3대 부족은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족들의 통합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소비에트 체제’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 인위적 형태의 통합이었다. 투르크멘 부족들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여전히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고, 특히 테케, 요무드, 에르사리족 등은 각각 아할/마리 지역, 발칸/다쇼구즈 지역, 아무다리야 영역 등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투르크멘 공화국의 구성에는 비단 투르크멘 부족 외에 러시아인을 비롯한 슬라브계 민족들의 기여도 중요한 사실로 남아 있다. 1924년의 투르크멘 공화국 수립은 투르크멘인들의 자체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든 투르크멘 부족들만이 일심 단결하여 독립투쟁을 벌여 얻어낸 성취물만은 아니다. 투르크멘 민족과 슬라브계 민족의 협력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인위적인 정치체제였던 것이다.

투르크멘 소비에트 공화국의 근거는 우선 민족적으로 투르크멘들이 다수를 점하던 곳과 역사적인 연고를 가진 지역이라는 점이다. 투르크멘인들 중에는 러시아혁명과 내전의 시기에 볼셰비키가 되어 신생 소비에트 국가건립에 참여하기도 했고, 주나이드-칸처럼 독자적인 투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또 한 부류는 아예 소련 영토를 벗어나 아프가니스탄 등지로 이주하기도 했다.³⁰⁾

29) Карпов(сост.)(1925), 57; Кадыров(2009), 122-126.

30)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간 4만여 가구는 대부분 에르사리족이었다. 이는 나중에 공화국 수도 결정 논란에 영향을 주기도 한 변수였다. 요무드족이던 주나이드-칸 세력은 산발적으로 소비에트 신생정부에 대항해서 부분적으로 저항을 지속하기도 했지만 1930년대가 되면 모두 정부군에게 진압되어 이른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던 바스마치 저항 운동이 크게 약화되었다. 부족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신생 투르크멘 공화국에서는 테케족, 요무드족, 에르사리족 등이 규모로 보나 지리적 위치로 보나 최대 부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문제는 투르크멘인들만이 국가의 요직

투르크멘 소비에트 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수도의 결정 그리고 행정 체계정비 등 전반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많았던 192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은 소련의 ‘토착화(коренизация) 정책’이 실행되던 시기였고 공화국의 주요 고위직에는 의도적으로 투르크멘인 종족들이 등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물론 권력 최고 상층부에 모스크바 중앙 당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비투르크멘 엘리트들도 있었다. 투르크멘 토착 엘리트들은 대개 러시아어 구사에 서툴렀는데 특히 나자로프처럼 히바 및 부하라 영역 출신들은 러시아인들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당시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였고 러시아어에 익숙한 투르크멘인들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테케족과 일부 요무드족들은 러시아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³¹⁾

하지만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련의 토착화 정책은 1930년대 중반 스탈린의 대숙청작업으로 완전히 폐기되었다. 투르크멘 공화국에서도 앞 장에서 언급되었던 아이타코프, 나자로프, 아타바예프 등 지도자들이 모두 같은 해인 1938년에 총살당했는데 이유는 이들이 모두 민족주의자 및 반국가 음모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³²⁾ 이후 투르크멘 공화국의 상층부 엘리트 구성은 오로지 모스크바 중앙에서 결정된 바를 따라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투르크멘 공화국은 분명히 투르크멘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무지한 경우(특히 러시아어 구사)가 많았기 때문에 주요 상층부 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상층부 엘리트는 러시아인을 비롯한 슬라브계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카자흐 및 우즈베크 공화국 등 인접한 소비에트 공화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투르크멘 여러 부족 간의 잠재적 갈등 문제를 공화국 상층부와 모스크바 당국에서 어떻

을 구성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상 러시아계 인사 등 비투르크멘인들의 권한도 배제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에트 연방체제가 가졌던 실제적 구조였던 것이다.

31) 투르크메스탄 총독령 하의 자카스피 주에서 거주했던 테케족과 일부 요무드족, 사리크족 등은 러시아의 문화와 언어에 노출되었던 반면, 히바 칸국과 부하라 에미르국에 속했던 요무드족 일부와 에르사리족 등은 우즈베크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게 되었다. 이는 신생 공화국에서 중요한 언어로 굳어진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엘리트들의 구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점에서 토착 투르크멘 엘리트들의 위상이 높지 못했고 오히려 러시아인 등 슬라브계 민족 엘리트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Edgar 2004: 72).

32) 이러한 혐의는 흐루시초프 시기에 모두 사면되고 복권되었다.

게 잘 조절하는가에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투르크멘 공화국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인 공산당 제1서기의 부족 출신을 규명해보는 것은 엘리트 집단에서 차지한 부족적 요소를 가늠케 해준다. 대숙청 후 1939년에 당 제1서기로 임명된 인물은 포닌(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Фонин: 1905~1974)인데 그는 일단 투르크멘 민족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 시기는 투르크멘어의 키릴화가 진행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비상시국이었다. 나중에 그가 소비에트 중앙 정부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 자리는 투르크멘인 바티로프(Шаджа Батырович Батыров: 1908~1965)가 맡게 되었다. 바티로프는 아할 테케족 출신으로서 당시 인구가 가장 많았던 테케족의 지지를 받았던 지도자였다. 학자적 성격이 강했던 바티로프는 3년 만에 오베조프(Балыш Овезович Овезов: 1915~1975)로 교체되었다. 그는 1년 만에 바바예프(Сухан Бабаевич Бабаев: 1910~1995)로 교체되었지만 다시 9년 만에 당 제1서기로 임명되었다. 오베조프는 히바 칸국의 영역이던 다쇼구즈 지역 출신이며 요무드족이었다. 바바예프는 알릴리족 출신이었으며 알릴리족의 근거지는 아할 지역이었는데 테케족과 관련이 있었다. 바바예프는 다시 카라예프(Джума Дурды Караев: 1910~1960)로 바뀌었고 그는 마리 테케족 출신이었다. 카라예프가 2년간 재직한 후 다시 공산당 제1서기직은 요무드족 오베조프로 바뀌었고 그는 1960년부터 9년간 투르크멘 공화국의 지도자가 되었다.

소련 중앙당국(정치국)은 특정 부족 출신에 편중된 인사를 하지 않고 교묘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구사했는데 여기서 제외된 주요 부족이 바로 에르사리족이었다. 그래서 오베조프의 후임으로 에르사리족 출신 가푸로프(Мухаммедназар Гапурович Гапуров: 1922~1999)가 등용되었는데 브레즈네프의 지원 덕분이었다. 그래서 가푸로프는 브레즈네프 및 그의 사후 지도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즉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16년간 투르크멘 공화국을 이끌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에르사리족 출신은 대개 보안기관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기반은 가푸로프 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가푸로프는 개혁을 주장하던 고르바초프의 인사정책으로 테케족 출신의 니야조프(Сапармурад Атаевич Ниязов: 1940~2006)가 등장하게 되었다. 니야조프는 아할 테케족에 속하며 오랫동안 중앙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던 테케족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다.³³⁾

33) 카디로프는 아할 테케족 출신 공산당 제1서기가 1951년부터 1985년 이전까지 등용되지 않았던 사실에서 모스크바 중앙당국이 아할 테케족을 경계하고 있었다고 했고, 동시에 전체 투르크멘 부족의 다수를 차지하던 아할 테케족의 불만을 만들

<표 1> 투르크멘 소비에트 공화국 공산당 제1서기
(대숙청 종료부터 소련 붕괴까지)

성명	재직 시기	출신 부족	비고
미하일 포닌	1939-1947	러시아인	투르크멘어에 키릴문자 적용
샤자 바티로프	1947-1950	테케	아할주. 학술원 원장 역임
발리쉬 오베조프	1950-1951 1960-1969	요무드	다쇼구즈 지역 기반
수한 바바예프	1951-1958	알릴리	차르조우 지역당 제1서기 역임
쥬마 카라예프	1958-1960	테케	마리주 기반
무하메드나자르 가푸로프	1969-1985	에르사리	브레즈네프계 인물 16년 집권
사파르무랏 니야조프	1985-1990	테케	아할주. 페레스트로이카 수혜자

위 도표는 전술한 투르크멘 공화국 당 제1서기를 역임한 인물을 정리한 것이다. 포닌을 제외하고 1947년부터는 투르크멘인들이 당 제1서기직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소비에트 중앙 당국의 정책적 일환이다. 알릴리족이던 바바예프를 제외하면 테케, 요무드, 에르사리 등 주요 3대 부족출신이 국가의 대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케족 또한 아할 테케와 마리 테케 출신이 등용되었다. 테케족이더라도 아할과 마리 지역의 차이는 앞서 기술한 곱데페 전투의 역사적 갈등에서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에르사리족의 부각은 가푸로프의 등장으로 명확해졌다. 고르바초프가 임명한 니야조프는 아할 테케족에 속하며 니야조프에 이은 현재의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Гурбангулы Мяликгулыевич Бердымухамедов: 1957~) 또한 아할 테케족 출신이다.³⁴⁾

2.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통합 문제

1991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주권독립국가를 준비하던 니야조프 당시 대통령이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국가통합 및 경제자립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경제자립 문제는 풍부한 천연가스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이득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국가통합은 부족적 전통이 강한 투르크멘 사람들 속에서 최선의 방책을 도출해야만 했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선조 ‘오구즈 칸’을 등장시

었다고 한다(Кадыров 2004: 27). 참고로 카라예프는 마리 테케족 출신이고 재임 기간이 겨우 2년에 불과했다.

34) 투르크멘 엘리트들의 부족 및 씨족 계보에 대해서는 카디로프 박사가 정리해 두고 있다(Кадыров 2009: 268).

켰다. 소련 시기에는 학술적 차원에서 오구즈 종족 및 투르크멘 종족에 대해 다루어졌을 뿐, 현실 속에 반영된 실체는 전혀 없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데올로기적인 것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소비에트 인간형을 추구하던 정치체도의 강화에 굳이 오구즈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³⁵⁾

니야조프 대통령은 독립 직후 자국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때 오구즈 칸은 전체 투르크멘 부족들을 통합하는 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을 하나의 국가로 묶는 이념적 역할을 했다. 테케, 요무드, 에르사리 등 모든 투르크멘 부족들은 오구즈 칸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체계화 작업을 시작했다. 오구즈 칸을 종족의 시조로 수용하지 않는 부족은 당연히 투르크멘 민족에 소속될 수 없었다. 하지만 자칭 투르크멘 민족이라고 해도 언어와 생활관습에서 일반 투르크멘 사람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족들 또한 투르크멘 민족으로 분류되지 못했다.³⁶⁾

니야조프 대통령은 투르크멘인들의 기원이 알타이 지방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와 서적들을 폐기처분할 정도로 역사정립에 몰두했다.³⁷⁾ 일단 이러한 역사연구와 개념 정립이라는 니야조프의 시도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루흐나마(Рухнама)』 저술을 통해 역사정립을 강화시켜 나갔다.³⁸⁾ 소련 시기에는 각 부족의 경쟁과 갈등 가능성이 소비에트 정치체제와 모스크바 중앙 당국의 적절한 인사정책으로 억눌려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공화국의 권력 제1인자인 공산당 제1서기직

35) 오구즈 칸의 개념은 같은 오구즈 종족으로 분류되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에 비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유달리 중요하다. 오구즈 칸은 오구즈 종족의 시조로서 전설적인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흉노족의 묵묵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현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오구즈 칸은 전체 투르크멘 부족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36) Edgar(2004), 60-61.

37) 이때 25,000권이 넘는 서적이 폐기되었다. 니야조프의 역사 정립의 핵심은 투르크멘인의 기원이 알타이 지방이 아니라 현재의 지역이라는 것이며, 독자적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다음을 참고. Ahmet T. Kuru(2002) "Between the state and cultural zones: nation building in Turkmeni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1, No. 1, p. 77.

38) 니야조프 시기에 『루흐나마』는 모든 국민들의 필독서였으며 제2의 쿠란으로 취급되었다. 대학입학 시험과목에서도 필수였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매우 낮아진 상태이다.

에 특정 부족이 편중되는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특정 부족이 투르크멘 공화국의 고위직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미연에 방지되고 있었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통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기반이 있는 부족들의 분파적 가능성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한편으로는 ‘인민회의(Халк Маслахаты)’라는 권력기관을 헌법에 규정하여 권력의 최고기관으로 명시하고 부족의 원로 및 지방의 유지들을 규합시켰다. 서구식의 다당제와 자유로운 언론활동은 규제되고 금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권력통합적이고 독재적인 정치지도력은 니야조프 대통령이 볼 때 분열과 원심력적 부족 간 이해관계를 볼 때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 또한 소비에트 체제에 익숙해 있어서 니야조프식의 정치스타일이 어색한 것만은 아니었다. 물론 일부 개혁적 성향을 가진 엘리트들이나 민주주의 정신이 있었던 인사들은 체포되거나 국외로 추방당하기도 했다.³⁹⁾ 하지만 강력한 통치력으로 2004-5년 당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키르기스스탄에서와 같은 정치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2006년 12월에 니야조프의 갑작스러운 서거 후에도 정치적 갈등이나 분규도 나타나지 않았다.

수백 년간 분열과 독자 노선을 걸어오던 투르크멘 부족들은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모스크바 중앙 당국의 관리와 통제에 익숙해 있었고 독립 이후에도 니야조프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 때문에 부족의 주장을 낼 수 없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고위직에 적절한 부족출신의 안배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동시에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도 추진되었는데 가령 발칸 주의 투르크멘바쉬 개발은 요무드족을 위한 것이었다.⁴⁰⁾ 여기는 투르크멘 천연가스의 생산지로서도 중요한 지대이다. 투르크메나바트의 산업개발은 에르사리족을 위한 것이었다. 물론 수도 아쉬가바트의 대대적 도시 개발은 수도로서의 위상 증대와 아할 테케족을 위한 정책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후임 대통령인 베르디무하메도프에서도 지속되고 있

39) 국외로 추방된 인사들은 지금도 모국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https://www.hronikatm.com/>가 있다.

4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황영삼(2015b) 「투르크메니스탄 아바자 관 광특구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슬라브연구』, 제31권 4호, 89-131쪽.

다. 단지 다른 점은 세계의 여론과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졌고, 니야조프 시기에 지나치게 강화되었던 국수주의적 정책이 폐기되었다는 점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테케족 출신으로서 테케족의 기반을 정치적 근거로 삼고 있다. 동시에 전반적인 국가개혁 정책을 통하여 세계의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들의 해외 유학정책도 권장되고 있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투르크멘 전체 부족의 입장을 고려하여 국가 현충일의 변화를 기했다. 니야조프 시기에 곱테페 전투의 날은 국가적 추모일로 지정되었다. 비단 당시 타 부족이 제외된 테케족(아할 테케)만의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통령은 독립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서 곱테페 전투의 날을 국가적 의미를 가진 날로 지정했던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강력한 지도력이 인정되던 당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에 거부하는 인사는 거의 없었고, 있었다면 강제 국외 추방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이러한 추모일을 폐지시키고 대신 1월 27일을 ‘조국 수호자의 날’로 지정하여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1948년 아쉬가바트 대지진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날로 개정했다. 이는 오늘날 부족주의적 성격이 잔존하면서도 동시에 민족의 통합을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 국가의 성격을 간파하고 있는 대통령이 내린 전격적인 결정이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가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통령의 통치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과 부족이 중심이 된 분리주의적 저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⁴¹⁾ 물론 소비에트 체제와 독립후 지금까지의 정치체제로 그러한 저항이 억제되고는 있지만, 저항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서방으로부터 권위주의적, 그리고 한때는 독재주의 체제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현재의 투르크메니스탄의 내부적 구조는 여전히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대통령은 강력한 통치력과 함께 지방의 발전을 감안한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부족출신을 적절히 분배하는 인사정책 또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는 부족을 초월하는 민족의 개념을 역사인식을 통하여 확고히 하는 일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⁴²⁾

41) 바로 이러한 부족주의적 특성이 바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구조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받기도 한다. Shahram Akbarzadeh(1999)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Legitimacy in Turkmenistan," *Nationalities Papers*, Vol. 27, No. 2, p. 282.

42) 현재 투르크멘 엘리트들은 자신의 출신 부족을 잘 인지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V. 결론

본 연구의 핵심은 투르크멘 부족의 다양성과 분열상 그리고 통합 민족을 향한 과정을 밝히는 일이다.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표 부족은 앞선 설명에서와 같이 테케, 요무드, 사리크, 초두르, 에르사리 등인데 이들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가령 수도인 아쉬가바트 및 마리 지역에는 테케족이, 투르크메니스탄 북부 및 서부 지역에는 요무드족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한 지역인 아무다리아 강 주변에는 에르사리족이 분포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수 세기에 걸친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어서 인위적인 특징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투르크멘인들은 11세기에 발흥했던 셀주크조 외에는 이렇다 할 독립 국가를 가지지 못했고, 부족 중심으로 유목과 이주생활을 하면서 주변 강대국이던 이란, 러시아 심지어 우즈베크인들의 지배를 받아왔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 팽창과정에서 나타난 투르크멘 부족 간의 갈등 또한 민족으로서 통합되지 못하는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제정러시아는 카자흐 스텝 점령은 물론 1865년에 타쉬켄트 지역과 연이은 부하라 에미르국 및 히바 칸국의 보호국화로 남긴 정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나머지 투르크멘 종족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콕데페 전투에서 제정러시아에 호의적 협력 태도를 보인 요무드족과 이에 저항한 테케족간의 분열과 대립이 발생했고, 결국 투르크멘 민족 전체의 굴복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투르크멘 민족이라 하더라도 외국 세력을 수용하는 부족간의 차이가 종족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무드족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과 다른 투르크멘 부족들을 연결짓는 지리적 위치에 있어서 양자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또 다른 요무드 일파는 히바 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항상 우즈베크인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히바 칸국에서는 주로 우즈베크인들에게 좋은 땅이 주어지고 일종의 이방인 격인 요무드족에게는 거친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양 종족 간의 갈등은 항상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유로 이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지는 않고 있으며, 일단 외형적으로 볼 때 투르크멘 사람, 투르크멘 국민으로 분류되는 일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결국 1924년 소련 당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선 재확정 정책에서 히바 칸국 내의 투르크멘 종족, 즉 주로 요무드인들이 새롭게 형성된 우즈베크 소비에트 공화국보다는 동족인 투르크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했던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계가 재설정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투르크멘 민족과 타 민족간의 갈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족인 요무드와 테케족간의 관계 등이 중요한데 이미 두 부족은 상호 경쟁적 입장에 있었다고 분석된다.⁴³⁾

러시아 혁명 직후에 히바 칸국 일대에서 발생한 반소비에트 저항운동에서 요무드족 출신 주나이드-칸의 활동은 투르크멘 부족들 상호간의 불협화음과 분열상을 최고도로 보여주는 단면인데, 어떤 면에서는 주나이드-칸의 반소비에트 저항이 투르크멘 민족의 독립운동으로까지 간주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호레즘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다른 투르크멘 부족들이 주나이드-칸의 지도에 호응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소련 시기에 투르크멘 부족 간 갈등은 모스크바 중앙 당국의 균형적인 인력 충원책으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공산당 제1서기직에 테케, 요무드, 에르사리족 등 적절한 인사를 안배하면서 체제를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1991년에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국가로 등장하면서 당시 대통령 니야조프 대통령이 서둘렀던 것은 바로 민족통합의 유지에 관한 것이었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오구즈 칸을 내세운 역사재정립을 시도하면서 전체 투르크멘 부족들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했다.

그의 후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또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우선 이들 두 명의 대통령은 모두 테케족 출신이며 지역적으로는 아할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요직에 부족 출신을 안배하는 인사정책과 지방의 균형있는 개발, 특히 요무드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칸주와 에르사리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레밥 주 등이 중요한 지방으로 간주되고 있다.

43) 투르크멘 부족간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합을 역설했던 투르크멘 시인인 막툼굴리 피라기(Махтумгули фраги: 1724~1807)는 이란 지배를 받던 지역의 투르크멘인이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막툼굴리 피라기를 러시아의 푸쉬킨과 비교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민족 시인으로 자랑할 뿐만 아니라, 기념일까지 제정하여 그를 칭송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을 분석해 볼 때 부족의식과 지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분열적 잠재성은 항상 남아 있으며, 그러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책으로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 밝혔던 것처럼 투르크메니스탄 국기에 굳이 5대 주요 부족의 상징을 표시한 점을 보더라도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부족 정도는 아니지만 부족 개념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 수준의 틀에서 우선적인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이러한 부족에 대한 상징은 인근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투르크메니스탄만의 특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КСИ

참고문헌

- 황영삼(2015a) 「투르크메니스탄 민족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20세기 초 투르크멘 공화국 체제의 출범 배경과 쟁점 및 의의」, 『슬라브학보』, 제30권 1호, 495-542쪽.
- _____ (2015b) 「투르크메니스탄 아바자 관광특구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슬라브연구』, 제31권 4호, 89-131쪽.
- _____ (2017) 「투르크멘 정치변동과 정치전통에 관한 분석 - 부족주의, 합의, 민주주의적 토대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3권 1호, 95-127쪽.
- Кадыров, Ш. Х.(2001) *Российско-туркмен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в 2 томах, Т. 1, Берген: Vodoni Hus.
- _____ (2004) “Становление и эволюция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у туркмен”, автореф. дисс. на соиск. учен. степ. доктора ист. наук, М.: Ин-т Африки РАН.
- _____ (2009) *Элитные кланы: штрихи к портретам*, М.: ММІХ.
- Карпов, Г. И.(1940a)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в Туркмении (1918–1920)* (Попул. очерк), Ашхабад: Туркменпартиздат.
- _____ (1940b) *Этнический состав туркмен* (Рукопись хранится в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МГУ), М.
- _____ (1940c)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туркмен и туркменского народа*, Ашхабад: Туркменгосиздат.
- _____ (1946) “О туркменах эсенхановского юрта”, *Известия ТФ АН СССР*, № 3-4, С. 21-25.
- _____ и А. М. Батцер(1930) *Хивинские туркмены и конец Кунгратской династии*: (Матер. по истории туркмен), Ашхабад: Туркменск. гос. изд-во.
- _____ (сост.)(1925) *Племенной и родовой состав туркмен*, Полторацк (Асхабад): Наркомвмуддел Туркменск. С. респ.
- Махмуд, ал-Кашгари(2005) *Дивán лугát ат-Турк*, перевод. З.-А. М. Ауэзовой, Алматы: Дайк-Пресс.
- Akbarzadeh, Shahram(1999)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Legitimacy in

- Turkmenistan,” *Nationalities Papers*, Vol. 27, No. 2, pp. 271-290.
- Edgar, Adrienne Lynn(2001) “Genealogy, class, and ‘tribal policy’ in Soviet Turkmenistan, 1924–1934,” *Slavic Review*, 60/2, pp. 266-288.
- _____ (2004) *Tribal nation: the making of Soviet Turkmenist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arrant, Amanda(2006) “Mission Impossible: the Politico-geographical Engineering of Soviet Central Asia’s Republican Boundaries,” *Central Asian Survey*, Vol. 25(1-2), pp. 61-74.
- Geiss, Paul Georg(1999) “Turkmen tribalism,” *Central Asian Survey*, 18/3, pp. 347-357.
- Horák, Slavomir(2015) “The Battle of Gökdepe in the Turkmen post-Soviet historical discourse,” *Central Asian Survey*, Vol. 34, No. 2, pp. 149-161.
- Irons, William(1975) *The Yomut Turkmen: A Study of Social Organization among a Central Asian Turkic-Speaking Popul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eller, Shoshana(2003) “The Central Asian Bureau, an essential tool in governing Soviet Turke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2(2-3), pp. 281-297.
- Kuru, Ahmet T.(2002) “Between the state and cultural zones: nation building in Turkmeni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1, No. 1, pp. 71-90.

Abstract**The Process and Potential Problem from Turkmen Tribal Conflicts to Integration****Hwang, Youngsarm***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divided aspects of Turkmen and achieving one integrated nation state through analyzing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urkmen tribes from the 18th to 20th century. Besides that,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internal conflicting factors among Turkmen tribes and their potential challenges in independent Turkmenistan. Main tribes in today Turkmenistan are Tekes, Yomuds, Sariks, Chodirs and Ersaris that occupy certain territories respectively. For example, Tekes reside around capital Ashgabat and Mervs, Yomuds around Northern and Western regions, and Ersaris around Amudariya river region. Historically these tribes had shown incessant conflicts and disputes among them and between other power nations ruling them. During the Soviet period, tribal conflicts were not prominent under the Soviet system of cadre policy such as the tribal considering selection of the first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The conflicting factor, however, among the tribes was internally potential. Soon after achieving independence, the first President S. Niyazov hurried the measure to secure the integrity of the new State by doing history-rebuilding work. All Turkmen tribes are descendents of Oghuz khan, so the disputes will not exist anymore. But considering the real situation of tribal competitions,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of dissolution or weakness of integration among tribes in view of inborn tribal consciousness based on territorial locations of each tribe.

Key words: Turkmenistan, Turkmen, Tribalism, Oghuz, Teke, Yomud

*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Central Asian Studies und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황 영 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정치학). 동 대학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러시아학술원 산하 러시아역사연구원 객원연구원. 카자흐 국립대학교 동방학대학 강의 파견. 러시아정교회 역사,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 문제, 중앙아시아 역사문화 연구.

Hwang, Youngsarm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Central Asian Studies und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of Political Science. Graduated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with the doctoral course of International Relations. Worked as senior researcher of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under HUFS. Worked as a visiting researcher at Institute of Russian History under Russian Academy of Sciences (Moscow). Worked as a visiting professor at Faculty of Oriental Studies under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Major areas: History of Russian Orthodox Church, Problems of Ethnic CIS Koreans and History of Central Asia.

논문심사일정

■ 논문투고일:	2018. 9. 28
■ 논문심사일:	2018. 10. 15 ~ 2018. 11. 2
■ 심사완료일:	2018. 11. 3